'거울 회화' : 이 열의 새로운 회화 실험

노화랑: 2018. 5.16-5.30

작가가 작업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더구나 중견이나 원로의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 이제껏 알려진 자신의 대표 작업을 기대하는 대중의 기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실험은 모험이자 위험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쉽지 않는 일을 거행한 작가 이 열. 그의 작업이 완전히 달라졌다. 표현방식 뿐 아니라 매체도 바꿨다. 전형적인 회화작가인 그가 오브제 및 입체를 활용한 작업을 전격적으로 선보였다. 이 열은 누구도 해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과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 수년 간 분투했다. 2015년, 파리의 작업실에서 보았던 그는 거울을 잔뜩 모아두고 기술적 문제를 풀기위해 여기저기 분주히 다니며 완전히 몰두 해 있었다. 씨테 데 자르(Cité des Arts)의 같은 건물에 있던 그는 언제나 거울 얘기만 했다. 지난 달, 노화랑 전시장에서 작가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서 본 건 산고의 고통 끝에 얻은 해산의 평온이었다. '드디어해냈다'는 확신에 찬 작가의 얼굴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듯했다.

전시장에는 기품있는 앤틱 거울들이 가득했다. 하나같이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빈티지 오브제들이다. 파리에서 보았던 거울들도 눈에 띄었는데, 모두 작가가 현지에서 발품을 팔고 집요하게 찾아낸 '수집벽'의 결실이다. 거울의 다양한 액자와 그 모양은 예사롭지 않고 그 축적된 세월의 무게감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까이 갈수록 차츰 드러나는 그의 '거울 회화'는 거울과 캔버스 중간쯤에 자리잡는 듯하다. 빈(blank)상태에서 단지 반사만 하는 거울이 아니다. 그 안에 흐릿한 얼굴 형상이 묻혀있고 녹슨 세월의 흔적과 얼룩이 추상화처럼 전체 화면을 구성한다. "거울면이 여러 겹일 수있는가?" 하는 호기심과 함께, 작가가 분투했던 기술적 고민을 가히 추측할 수 있다.거울 안에 내장된 여러 겹의 천은 어렴풋한 기억의 지층인 듯, 오래된 형상을 아련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그 위에 관람자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열이 거울에 관심을 가진 건 오래 된 일인데, 10여 년 전 미군부대에서 나온 거울을 수집하면서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 거울면에 작업을 시도한 것은 2014년부터였고 이듬 해 파리에서 보낸 연구년의 한 해가 결정적 계기였다. 작가는 매 주마다 벼룩시장에 가서 앤틱 거울들을 찾아냈다. 이 거울들은 초현실주의에서 중시하는 '발견된 오브제(objet trouvé)'라 할 수 있다. 우연히 발견한 앤틱 거울 중에는 19세기 프랑스귀족 집안의 가보(家寶)였던 거울도 있고, 영국 빈티지 시장에서 구한 에보니아목 프레임의 거울도 있다. 비용도 만만치 귀한 '고물'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것이다.

이 열은 이 낯선 매체에 완전히 새로운 실험을 가했다. 제작과정은 놀랍도록 복잡하고 전례 없이 어렵다. 거울 전용으로 쓰는 특수용액으로 반사면을 부식시키고, 은경뒷면에 얇은 천을 여러 겹 대어, 캔버스를 만들 듯, 자신만의 '회화면'을 제작한 것이다. 작가는 이 투명한 얇은 천에 에어브러쉬로 초상을 그려 넣고, 때로는 사진을 전사시켜 뒀기에 거울은 이미 중층구조이다. 이 중첩된 거울 회화를 만드는 과정에서특히 중요한 것은 극도의 신중함과 섬세함이다. 처음에는 사포로 갈고 끌로 긁으며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망친 거울이 한 둘이 아니다. 결국 유리공예 전공자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거울 은경을 녹이는 용액을 이용하여 부식시켜, 자연스럽게 원하는 얼룩과흔적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 지난한 과정에서 작가가 의도한 것은 거울에 만든 회화적 표현이 오랜 시간 녹슬고 삶아 있던 자연의 흔적과 어우러지게 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그가 만든 '인공 얼룩'은 녹슨 거울면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의 거울회화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서로 교차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작가의 관심은 역시 평면이라는 점이다. 매체가 이토록 바뀌었건만, 이 열은 역시 화가다. 그에게 불투명한 캔버스 천 대신 투명하고 매끄러운 거울표면은 그가 만드는 이미지가 집결되는 회화의 장이다. 회화 작가 이 열은 캔버스든, 거울이든 평면을 잡고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추가되는 건, 거울면에 비춰진 관람자 자신의 얼굴이다. 중층적 거울표면은 부식되고 작은 얼룩과 자취, 모호한 얼굴 형상, 그리고 관람자 자신의 모습이 겹쳐 3중구조인 셈이다. 그 녹고 삭은 부분 사이 아련히 그려있는 얼굴은 어머니의 얼굴일 수도, 옛 애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 빛바랜 그리운 얼굴과 일별하는순간, 동시에 반영된 나의 모습은 거울의 상(像)과 하나가 된다. 이 열의 거울 회화는 이렇듯 기억의 작동방식을 닮아 있다. 시적이고, 심리적이고, 때로 철학적이다.

전영백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